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김경희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Intervention Program

Kyung-Hee Ki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개입의 크기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석방법으로, 개입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다. 논문의 선정기준을 통해 총 33편의 연구물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33편의 연구물에서 129개의 효과크기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0.624로 나타났다. 인간특성 영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정의적 영역, 운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사회적 영역, 복합적 영역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참가자의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개입시기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3차 예방, 2차 예방, 1차 예방 순으로 효과크기를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와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예방, 개입, 예방의 단계, 메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using a meta-analysis to estimate effect siz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Using an objective and systematic method, meta-analysis has advantages that prove intervention's amount and direction. Meta-analysis facilitates comprehensive analysis. Through the data collection, 33 studies were selected and 129 effect size were calculated as analysis objects. The overall effect siz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was 0.624. In the human characteristic, the affective domain had the largest effect size. Next were the physical domain, cognitive domain, the social domain and the complex domain. Analysis on age of participant, high grade elementary students group had the largest effect size. Next were the high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lower grade elementary students group. Analysis on intervention periods, tertiary prevention had a largest effect size. Next were secondary prevention and primary prevention.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Prevention, Intervention, Prevention stage, Meta-analysis

Received 4 August 2016, Revised 6 September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Published 28 Octo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Kim-Kyong H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Email: smkh22@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학교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 주변인 모두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이며, 학교폭력의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1]. 학교 폭력은 최근 들어 폭력만의 문제를 넘어서 피해학생의 자살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학교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2]. 이러한 심각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대책과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2015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피해응답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신고 및 도움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의 피해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학교폭력피해 경험시기가 점점 저연령화[3], 집단화 되며 피해수준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예방과 중재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Olweus(1994)는 학교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폭력행위로 학생이 개인 또는 또래집단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따돌림, 욕설, 협박 등의 폭력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6].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피해 학생은 부정적인 자아상[7], 우울, 외로움[8,9], 신체화[7,10], 대인기피[11], 학교적응의 어려움[7,12] 등의 문제를 호소하였다. 가해학생의 경우 반사회적 문제행동[11], 학교적응 문제[13], 알코올 문제[14]를 호소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단적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행동 문제가 계속될 경우, 이는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습 범죄자가 될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처럼 학교폭력의 문제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학교에서 적응의 문제, 높은 스트레스[16,17]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인들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18].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19,20], 낮은 자기통제[21], 낮은 공감능력[22], 정서불안[23,24], 공격성[25,26], 충동성[25] 등이 있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에는 가정환경[27, 28] 교우관계[29, 30], 대중매체[31, 32]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발생 요인은 다양하며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18]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 또한 학생 개인의 특성, 학교 체제, 가족 체제, 지역사회 체제 등의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33,34,35].

학교폭력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폭력이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경우에 비해 이를 미연에 예방하는 접근이 보다 효과적이다. 예방(prevention)은 최초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 발생 과정에 대한 연구와 개입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36]. 이러한 개입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단계 예방 모형’을 들 수 있다. 3단계 예방모형의 1단계는 대부분의 학생이 속하는 영역으로 현재 어려움이 없는 단계를 의미하며 보편적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문제가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2단계는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에 놓여 있는 상태로 선택적 개입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특정 장애나 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높은 대상에게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소수의 학생이 해당하는 영역으로 학생들은 현재 장애나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지적 개입이라고 한다. 이는 장애나 문제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방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된다[25]. 현재 국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서울대 발달심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헬핑 프로그램, 시우보우 프로그램,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 건강연구소에서 노혜련 등이 개발한 작은 힘으로 시작해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명상[25, 37], REBT[19], 미술치료[38,39], 역할극[40]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호흡명상과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강민규(2016)의 연구에서는 가해 학생들의 공감능력이 향

상되었다[37]. 서진, 유형근, 권순영(2010)의 연구에서는 역할놀이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와 갈등해결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고한 것은 아니었다. 성지은, 김수진의 연구(2014)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1]. 또 학교폭력의 보호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는 공감을 증진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었으며 학교폭력의 발생요인인 공격성의 감소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폭력에 대한 태도와 인식변화, 정서변화, 공격성 및 실제 폭력사용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종합적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42]. Park-Higgerson 등(2008)의 메타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폭력행동 감소를 가져오며,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가 진행한 프로그램, 위험군의 학생집단에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냈다[43]. 윤초희 등(2014)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공격적 행동이나 폭력 감소, 사회적 기술, 정서 개선에 효과적이며 대상연령은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효과크기 차이를 보고하였다[1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과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을 통한 효과와 활용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해도 타당성이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현장 적용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효과도 입증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활용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4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심리 치료적 접근을 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3단계 예방 모형을 기초로 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메타분석은 학계에 보고된 모든 연구 결과들을 모아 계량적인 과정을 통해 요약하는 분석방법으로 전체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연구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45,46]. 기존의 연구물을 통합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화술적 연구가 대표적이거나, 이러한 방법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메타분석이 고안되었다[45]. 따라서 메타분석은 체

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물을 선정하며,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개입의 효과에 대한 방향(direction)과 크기(amount)를 제시한다. 메타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선행 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효과의 크기를 표준화된 측정단위로 변환시켜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메타분석에서는 효과크기를 사용한다[45]. 학교폭력에 관한 메타연구로는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메타연구[47], 국내 학교폭력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된 메타분석 논문으로 윤초희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18]. 이 연구에서는 23편의 연구물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효과크기는 .641로 나타났으며 Cohen(1992)의 해석기준에 따라 매우 큰 효과크기임을 확인하였다[48].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특정된 연구들만을 포함시켰으며,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분석대상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이 연구에서는 예방의 단계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윤초희 등의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던 연구물까지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18]. 지금까지 학교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연구는 대부분 개별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주요한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예방과학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폭력 촉발하는 위험요인을 없애고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융복합의 교육적 시도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내용을 조직함에 있어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인지 정서적 수준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실시되었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인간특성, 참여대상, 개입시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 개별 연구물들의 프로그램 특성, 효과변인(종속변인), 조절변인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연구의 효과변인에 따

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연구의 중재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 국회도서관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학교폭력, 따돌림, 왕따, 괴롭힘, 가해자, 피해자, 예방 등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논문의 선정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최근에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이나 비교집단을 사용하여 사전-사후 연구 설계를 통해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을 비교한 연구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효과크기 산출을 위해 연구의 결과가 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연구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중복 논문을 제외하고 총 69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1차로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5편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6편을 제외하였다. 2차로 주제가 맞지 않은 10편, 연구 설계가 선정 기준과 맞지 않은 9편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효과크기 산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6편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33편의 논문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information of selected studies

	Category	N
Publish year	2002-2008	9
	2009-2012	9
	2013-2016	15
type	unpublished	18
	published	15
intervention period	1st prevention	22
	2nd prevention	8
	3rd prevention	3

2.2 자료의 코딩

본 연구자는 선정된 33편의 연구물의 출판연도, 출판 유형, 프로그램의 특성, 프로그램 개입 시기, 효과영역, 그 외의 참가자 특성을 범주화하여 코딩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개별 연구에서 보고한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용남과 김은아(2013)가 제시한 인간특성 영역에 따라 효과영역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49]. 이용남, 김은아(2013)는 인간의 특성을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로 인지적 특성은 지(知)의 사용과 사고방식에 관련된 영역으로, 지능, 사고력, 인지 전략 지식 등이 있다. 두 번째, 정의적 특성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와 관련된 영역으로 태도,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공감 등이 포함된다. 셋째, 사회적 특성은 대인관계와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특성으로 공격성, 이타심, 협동 등이 있다. 넷째, 복합적 특성은 어느 한 가지 범주에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지적·정의적·사회적 특성 중 둘 이상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복합적 특성으로는 성격, 가치, 적응유연성, 스트레스 등이 있다. 다섯째, 신체적 특성은 운동, 신체와 관련된 특성으로 각종 스포츠 기술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프로그램 개입 시기에 따라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분류하였다. 연속 변인인 참가 인원 수, 프로그램 진행 회기에 대해서는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코딩 내용은 본 연구자, 상담심리학 박사 1인과 합의 하에 선정하여 코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전공 교수와 상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2.3 자료 분석

메타분석에서는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출판 편향 평가를 실시한다. 출판 편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시각적인 확인 방법으로 Funnel plot를 활용하였다, Funnel plot은 효과 크기를 x축, 표준오차를 y축으로 나타낸 그래프로, 그래프에서 평균효과 크기를 중심으로 O의 좌우 대칭 정도에 따라 출판 편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둘째, Egger이 제시한 linear regression 방법, 셋째, Begg 과 Mazumdar의 순위 상관 방법을 사용하였다.

메타분석에서 효과크기는 개입의 효과크기 또는 변수 간 관계의 크기를 표현한 값으로, 분석 단위에 해당한다 [45]. 이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평균 차이 효과 크기 중 표본의 효과크기의 차이에서 오는 편파를 교정해주는 장점이 있는 Hedges' *g* 효과 크기를 사용하였다[50]. 이는 메타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모든 연구물에서 사전-사후 측정치 간 상관을 제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정치인 $r = .7$ 을 사용하였다[51]. *g* 값은 0.2는 작은 효과크기, 0.5는 중간효과크기, 0.8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한다.

메타분석이 소개된 이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하나가 바로 각각의 연구 결과들이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것인가에 대한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edges와 Olkin(1983)는 동질성 검정을 제시하였다[5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물들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정 값인 Q값을 산출하여 이질적인 경우에는 무선효과모형에 의해 분석을 실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에 따라 효과크기 추정이 달라진다.

동질성 검정 후, 분석의 단위를 이동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전체 효과크기는 각각의 연구물을 하나의 단위로 사용하였으며 분석하였다. 하위 범주에 따른 효과크기는 부여받은 ID를 하나의 단위로 사용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시하였다. 전체 효과크기와 범주형 변수의 경우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를 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표준화된 평균차이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경우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해당 변수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메타분석을 위하여 메타분석 지원 전문 프로그램인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동질성 검정

전체 효과크기를 측정하기 전에,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여 각 연구에서 추출된 효과크기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검정해야 한다. 검사 결과, Q값은 365.440으로 나타났다. I^2 값은 91.243으로 나타났다 <Table 2>. I^2 값은 25%이면 낮은 수준, 50%이면 중간

수준, 75% 이면 높은 수준으로 이질적임을 타나낸다[5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물들의 효과크기가 매우 이질적임으로 판단하였으며, 개별 연구물의 효과크기 또한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Q=511.521$, $df=114$, $p < .001$). 검사결과에 따라 이 연구에선 개별 연구물의 차이에 민감한 랜덤효과 모형을 선택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33편의 연구를 각각 하나의 분석 단위로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Table 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0.624로 나타났다으며, 95% 신뢰구간은 0.535-0.712였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중간 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Homogeneity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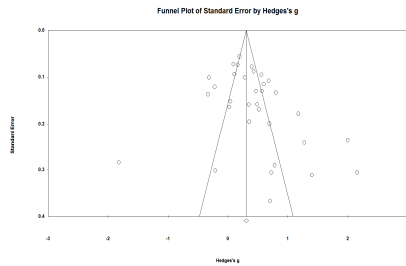
N	Q	p	I^2	95% CI	SE
33	365.440	0.000	91.243	0.265-0.347	0.021

<Table 3> The overall effect size

k	ES	SE	Var	95% CI	p
129	0.624	0.045	0.002	0.535-0.712	0.000

3.2 출판편향 검증

출판 편향 검증을 위해 먼저 Funnel plot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평균효과 크기를 중심으로 O가 좌우 대칭을 이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 통계적인 방법으로 출판 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Egger의 linear regression 방법과 Begg와 Mazumdar의 rank correl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Egger의 linear regression 방법을 통해 산출한 회귀 절편은 4.916, 표준오차는 0.701로 나타났다. 회귀절편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p값이 0.004로 유의하였다. Begg와 Mazumdar가 제시한 rank correlation 방법을 활용하여 표준오차와 효과크기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Kendall's tau는 0.501, p는 0.005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시각적인 확인, 통계적인 방법들을 통해 출판편향의 가능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출판 편향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결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출판 편향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효과크기를 과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Fig. 1] Funnel plot

3.2 효과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개별 연구물의 여러 효과들을 인간의 특성 영역에 따라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는 인간의 정의적 영역에서 0.781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다음으로는 운동적 영역(0.686), 인지적 영역(0.540), 사회적 영역(0.492), 복합적 영역(0.472) 순으로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의 표현방식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동기, 흥미, 불안, 태도 등을 포함하는 정의적인 영역에 효과가 중간 이상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고 한 것으로 보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인간의 특성 영역에서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3 중재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개별 연구에서 살펴본 변수들을 크게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로 구분하여 연구의 특성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범주형 변수에는 참가자의 연령과 예방 단계가 포함되었다. 성별의 경우 보고하지 않은 연구물이 대부분이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대부분이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속형 변수에는 연구의 프로그램 진행시간이 포함되었다.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시간에 따라 효과크기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Table 4>, <Table 5>.

3.3.1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ID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는 20

개, 효과크기는 0.454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ID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는 53개이며 효과크기는 0.734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ID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는 47개였으며 효과크기는 0.576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ID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는 8개, 효과크기는 0.675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에 가서 가장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이었다. 이러한 효과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5.448, p > .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연령이 유의한 중재변인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부여받은 ID의 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에게 활발히 실시되는 반면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등학생에게는 상대적으로 적게 실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2 개입시기에 따른 효과크기

3단계 예방 모형에 근거하여 각 연구에서 보고한 프로그램 개입의 단계의 특성에 따라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1차 예방에서 0.53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차 예방 0.816, 3차 예방 0.819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차 예방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2차 예방, 1차 예방 순으로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러한 효과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Q=10.414, p < .01$).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개입 시기가 유의한 중재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4> Effect Size of categorical Factor

category	k	ES	SE	p	Q
cognitive	29	0.540	0.058	0.000	-
affective	41	0.781	0.095	0.000	
social	20	0.492	0.082	0.000	
complex	18	0.472	0.077	0.000	
physical	21	0.686	0.147	0.000	
low grade	20	0.454	0.01	0.000	5.448 (0.142)
high grade	53	0.734	0.09	0.000	
middle school	47	0.576	0.07	0.000	
high school	8	0.675	0.12	0.000	10.414 (0.005)
1st	84	0.536	0.053	0.000	
2nd	33	0.816	0.078	0.000	
3re	12	0.819	0.143	0.000	

3.3.3 연속변인에 대한 메타회귀분석

연속변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 회기, 참가자 수는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회기 수는 최소 4회기, 최대 16회기이다. 참가자 수는 최소 8명, 최대 321명이다. 회기 진행 수에 따른 분석 결과, 회기 수가 늘어날수록 효과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가자 수에 따른 메타회귀 분석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증가할수록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Meta-regression of intervention

category		B	SE	95% CI	p
session	slope	0.212	0.165	-0.111-0.535	0.000
	intercept	0.041	0.016	0.009-0.071	0.009
participant	slope	0.746	0.058	0.633-0.860	0.000
	intercept	-0.003	0.001	-0.005-0.001	0.001

4. 논의

이 연구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 프로그램의 효과 영역별 효과크기, 조절변인에 따른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0.624의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간보다 다소 높은 효과크기로 보고한 윤초희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8]. 둘째, 개별연구에서 살펴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인간특성 영역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정의적 영역에서 .781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고하였으며, 이는 해석 기준에 의해서도 큰 효과크기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운동적 영역(.686), 인지적 영역(.540), 사회적 영역(.492), 복합적 영역(.472) 순으로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실시되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폭력에 대한 인식, 정서, 사회, 행동 등 다양한 결과변인에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 윤초희 등(201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18].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가진 폭력에 대한 태도, 정서와 관련된 공감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외현적 관찰이 가능한 신체, 운동적인 영역에도 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 대한 분석은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외현적인 행동, 정서, 인지와 관련해서 학생 본인의 대답 이외에 교사, 또래 친구들의 관찰, 보고에 의해서도 결과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개입의 효과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의 개별 연구물의 특징을 고려하여, 예방의 단계, 참가자 특성(연령)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효과크기는 0.454, 초등학교 고학년의 효과크기는 0.734, 중학생의 효과크기는 0.57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효과크기는 0.675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에게서 가장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이었다. 또한 참가자의 연령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조절변수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현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에게 활발히 실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고한 윤초희 등(2014)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18].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 연구물과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대상 연구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분석을 통해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프로그램의 개입 시기를 고려하여 이를 3단계 예방 모형에 근거하여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1차 예방에서 0.536, 2차 예방 0.816, 3차 예방 0.8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입의 시기에 따라 효과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교폭력상담협회(2004)에 따르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주로 비디오 시청(26.7%), 강

당 강의(22.6%), 시청각 강의(13.1%)와 같은 형식적인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53].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에서는 이러한 학교의 예방교육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54]. 이 연구에서도 1차 예방 단계에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고한 반면에 이미 학교폭력이 일어나거나 위험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차, 3차 예방의 단계에서 매우 큰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들이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개입에는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속 변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회기 수, 참가자 수에 대해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회기 수가 증가할수록, 참가자 인원이 증가수록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초희 등(2014)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18]. 이러한 결과에 대해 후속 연구에서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첫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1차 예방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에 가장 낮은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1차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당에 모여 실시되는 예방 교육 대신 학급별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각각 다른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의 실시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들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적 개입에 대해 단편적, 일회적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체계와 변인들을 고려하여 예방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윤초희 등(2014)은 단기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적용하는 등의 다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단지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아닌 상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8].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단기적인 개입보다는 장기적인 개입, 상시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다층수준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하였다[42]. 학생들은 개인, 학교,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55,56].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접근에서는 개인변인, 가족체계변인, 학교체계요인, 지역사회체계변인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폭력 문제는 점차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학교폭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로 지적되는 문제(무단 결석, 가출 등)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학부모, 교육청, 경찰의 협력체계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에 중점을 취한다[20]. 그에 비해 국내의 경우 범국가적 차원의 교과과정이나 학교의 전반적인 생활지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청소년 관련 단체 기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20].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입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교육과정, 지역사회와의 연대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 같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급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후 조사와 추후 조사를 통해 지속적 효과에 대한 평가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Y. K. Han, H. S. Lee, S. S. Kim & Y. H. Lee. "An Analysis of Mobility of Experiencing School Violence and the Influential Factor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Vol.17, No.1, pp.145-168, 2016.
- [2] A. H. Tak. "The effec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the reduction of aggression among elementary school 4th graders", Hanyang University, 2012.
- [3] T. J. Choi, S. H. Huh, S. M. Park & H. Y. Lee. "Analysis of Patterns and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Violence, Korea Counseling Association", Vol. 7, No.2, pp.613-632, 2006.
- [4] C. H. Kim. "A Study on Condition of In-School Violence and Its Counter-Measures". Dongguk University, 2004.
- [5] M. K. Seo. "The effec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in middle schools", Sungsan Hyo University, 2007.
- [6] Olweus. D.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35, No.7, pp.1171-1190, 1994.
- [7] Y. M. Park. "Development of a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Lower Grades Using Picture Books". Korea Nationa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3.
- [8] J. W. Lee & K. H. Kang.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4, pp.69-74, 2014.
- [9] Crick, N. R., & Grotpeter, J. K.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pp.710-722, 1995.
- [10] Natvig, G. R., Albrektsen, G. & Qvarnstrom, U.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0, No.5, pp.561-575, 2001.
- [11] J. A. Song & Y. H. Kim. "Primary Study of Developing Program for Adolescents' Psychological & Behavioral Adaptation to School Violence(I), Korea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19, No.6, pp.35-50.
- [12] H. W. Kim.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n Relationships among Peer Rejection, Peer Victimization, Psychological Health, School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Vol. 13, No.2, pp.173-198, 2011.
- [13] H. K. Lee, K. E. Jung & Y. S. Lim. "Medi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y of Seeks Social Support and Bullying Apprais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Bully and School Adjustment,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5, No.4, pp.43-54, 2007.
- [14] Herrenkohl, T. I., Maguin, E., Hill, K. G., Hawkins, J. D., Abbott, R. E., & Catalano, R. F. "Developmental Risk Factors for Youth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26, pp.176-186, 2000.
- [15] Olweus. D.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NY: Wiley, 1993.
- [16] E. H. Lee, S. J. Gong & J. S. Lee. "Relationships Among Socio-Environmental School Violence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and Bullying at School,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6, pp.123-145, 2004.
- [17] Karatzias, K. G., Power, K. G., & Swanson, V.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ottish secondary schools: Same or separate entities? Aggressive Behavior", Vol.28, pp.45-61, 2002.
- [18] C. H. Yoon, S. G. Park & I. S. Shin.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in Korea,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Vol.15, No.1, pp.189-215, 2014.
- [19] S. J.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REBT Oriented Offender-Centered High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Chung-Ang University.
- [20] S. K. Han. "A Study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Effect on Anger-Control and Self-Esteem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Dong-A University, 2007.

- [21] S. Y. Kim, J. H. Kim & K. Y. Lee. "The relationships of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Adolescents, Aggression, Self-control and Self-esteem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s. Korea Counseling Association", Vol. 5, no.3, pp.711-723, 2004.
- [22] Olweus. D.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Facts and interven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Vol.12, No.4, pp.495-510, 1997.
- [23] D. H. Jang. "The study on dual-experienced character and factor of school violence in the youth,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4, No.6, pp.69-97, 2007.
- [24] Austin, S., & Joseph, S.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 in 8 to 11 year 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66, pp.447-456, 1996.
- [25] Y. M. Yom. "The Development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Applying Meditation for Adolescents with School Violence Assaul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2.
- [26] M. H. Yoon & S. H.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14, No.5, pp.541-551, 2016.
- [27] J. J. Choi. "A Study on Effectiveness of Bullies Group Work Program", Kkotongnae Hyundo University, 2007.
- [28] Hawkins, J. D., Herrenkohl, T., Farrington, D. P., Brewer, D., Catalano, R. F., & Harachi, T. W. "A review of predictors of youth violence" 1998.
- [29] H. J. Kim. "The development of school-violence prevention program and analysis of its effec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2.
- [30] J. H. Jung. "The Study of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School Bas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Hanyang University, 2009.
- [31] J. Y. Kim & J. S. Jung. "The effec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t school violence behavior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8, No.8, pp.141-159, 2011.
- [32] Y. T. Jung, J. A. Oh & Y. J. Lee.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committing behavior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10, No.1, pp.77-86, 2012.
- [33] S. H. Kim. "The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Analysis on School Violence, Korea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 20, No.4. pp.1027-1042, 2006.
- [34] G. N. Park, H. G. Yoo & Y. S. Cho. "The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to Reduce School Violence Potentiality of a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1, pp.459-477, 2014.
- [35] J. M. Kim & J. K. Moo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afe-Guar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4, No.2, pp.29-33, 2013.
- [36] K. H. Kim.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Seoul: hakjisa. 2000.
- [37] M. K. Kang. "The Effects of Empathy Training Program with Mindfulness Breathing Meditation on Empathy ability and Self-Regulation of Adolescents with School Violence Assault". Kangwon University, 2016.
- [38] S. M. Lee & S. Soon. "An effect of the group art-therapy on abused children's depression, anxiety, self image : Children's Art Therapy Department of complex convergence perspective,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13, No.12, pp.291-301, 2015.
- [39] M. H. Han.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Adaptation of School Lif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Korean Arts Psychotherapy Association", Vol.9, No.3, pp.293-314.
- [40] J. Seo, H. G. Yoo & S. Y. Kwon. "Development of Conflict-resolution-oriented School Violence Prevent program Using Role Play for Lower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child

- education”, Vol.19, No.1, pp.197-213, 2010.
- [41] J. E. Sung & S. J. Kim. “The effects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school violence attitudes, anger and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1, pp.537-549, 2014.
- [42] J. Y. Yoon & D. Y. Kim. “The effect of classroom-based Anti-bullying program,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Vol.2, No.2, pp.1-21, 2013.
- [43] Park-Higgerson, H., Perumean-Chaney, S. E., Bartolucci, A. A., Grimely, D. M., & Singh K. P. “The evaluation of school-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A meta-analysis, Journal of School Health” Vol.78, No.9, pp.465-520, 2008.
- [44] H. J. Park, M. K. Chung & H. W. Kim. “The Effec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Journal of Korean education ”, Vol. 37, No.4, pp.47-72, 2010.
- [45] S. D. Hwang. “Meta-Analysis”. Seoul: hakjisa. 2014.
- [46] Glass, G. V. “Primary, secondary,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Vol.5, No.10, pp.3-8, 1976.
- [47] E. S. Choi.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School Violence, The Korean Family Welfare Association”, Vol.10, No.2, pp.95-111, 2005.
- [48]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1992.
- [49] Y. N. Lee & E. A. Kim. “ Human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 Seoul: hakjisa. 2013.
- [50] Hedges, L., & Olkin, I. “Statistical models for meta-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1985.
- [51] Lipsey, M. W., & Wilson, D. B. “Practical meta-analysis”, Thousand Oaks(CA): Sage Publication, 2000.
- [52] Higgins, J. P., & Green, S. (Eds.).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ol. 5)” Chichester: Wiley-Blackwell, 2008.
- [53] Korea School Violence Counseling Society. “Theory and practice of school violence”, 2015.
- [54]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Investigate the trend of Korea School Bullying”, 2011.
- [55] M. J. Kim. “Construction of A Predictive Model of Adolescents’ School Violent Behavi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2.
- [56] J. L. Jung. “A study on construction of violence prediction model in adolescents”, Yonsei University, 2000.

김 경 희(Kim, Kyung Hee)



- 1994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4년 8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마음챙김, 수용전념치료
- E-Mail : smkh22@hanmail.net